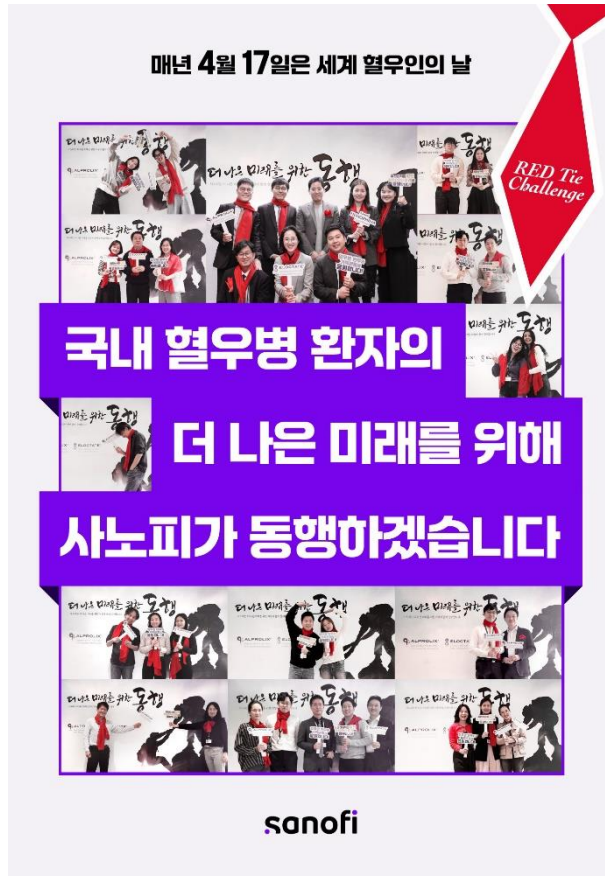


## 사노피, 세계 혈우인의 날 맞아 '레드타이 챌린지' 전개

- \*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목적의 글로벌 캠페인 동참
- \* 사내 오프라인 행사 및 온라인 채널 통해 국내 혈우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 약속



[사진] 사노피, 세계 혈우인의 날 맞아 '레드타이 챌린지' 전개

대한민국 서울, 2024년 4월 16일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이하 사노피)가 4월 17일 세계 혈우인의 날을 맞아 사내 오프라인 행사와 온라인 채널을 통해 '레드타이 챌린지(Red Tie Challenge)'를 전개한다. 레드타이 챌린지는 혈우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혈우병 환자의 건강한 일상을 응원하기 위해 미국혈우재단이 2016년 론치한 글로벌 캠페인이다. 해외에서 매년 진행중인 '레드타이 챌린지'를 국내에 전파함으로써 질환 및 캠페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사노피는 4월 4일 하루동안 사무실에 국내 혈우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다짐하는 백월을 세우고, 국내 혈우병 환자 및 환자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임직원은 세계 혈우 사회가 하나의 혈연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빨간색 아이템을 착용하고 환자와 환자 가족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챌린지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세계 혈우인의 날만큼은 모두 함께 혈우병 환자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혈우병 환자가 출혈 걱정 없이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날까지 사노피가

를 함께하겠습니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외에도 전 세계 393 만 명이 팔로우하는 자사 링크드인 채널과 사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세계 혈우인의 날의 의미를 다함께 되짚으며 한국 임직원의 ‘레드타이 챌린지’ 참여 소식을 알릴 예정이다.

### **배경은 대표**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배경은 대표는 "사노피는 국내 혈우병 치료제 공급 기업 중 유일하게 A 형 혈우병 반감기 연장 제제와 B 형 혈우병 반감기 연장 제제 모두 공급하며, 혈우병의 다양한 치료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혁신적인 신약 포트폴리오를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행'을 약속드린 만큼, 사노피는 앞으로도 국내 환자들이 최적의 치료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전했다.*

사노피는 혈액응고인자 8 인자의 반감기가 연장된 A 형 혈우병 치료제 ‘엘록테이트’와 혈액응고인자 9 인자의 반감기가 연장된 B 형 혈우병 치료제 ‘알프로릭스’를 공급하고 있다. 엘록테이트와 알프로릭스는 각각 A 형 혈우병 환자와 B 형 혈우병 환자에서의 ▲출혈의 억제 및 예방 ▲수술 전후 관리(외과적 수술 시 출혈 억제 및 예방) ▲출혈의 빈도 감소 및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적응증을 허가 받아 2020 년 국내에 출시됐다. 한편 알프로릭스는 2023 년 8 월부터 B 형 혈우병 반감기 연장 제제 최초로 한국혈우재단 부설 의원을 통해 처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B 형 혈우병 환자의 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